

교회소식

◆ 광고

-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아가페찬양대입니다. (연습 2시, 소망관)
- 2014년 대전신일교회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 ①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② 장소 : 대전신일교회
 풍성한 바자회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생필품, 의류, 가전제품 등의 헌물을 부탁드립니다.
- 9월 1일부터 모든 소그룹 모임(목장, 중보기도, 수요전도대)이 개학합니다. 기도로 개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 휴가 : ① 안주모 담임목사 8월25일~30일 ② 박석문 집사 8월25일~30일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최계분, 김재홍, 정재안, 광정자

※교회 기도제목

-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7여전도회	실버목장	제8여전도회	쉽니다	쉽니다	쉽니다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8월 행사

- 3일 : 정기제직회, 신일비전헌신예배 • 4~5일 : 한마음 전교인 수련회
- 10일 : 각 기관 월례회 • 14~15일 : 당회원 수련회
- 17일 : 제4남, 5여전도회 헌신예배 • 27일 : 정기당회

◆ 8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8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광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73장(구73장)
새287장(구205장)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기 도 1부/양문주 장로
2부/강일창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출애굽기 3:1~12 (구 P84)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내가 누구이기에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320장(구 350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박권용 장로
2부 / 김제곤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정 기 훈 강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육공일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엘 2:18~27(구 P1272)

찬 양 아가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내가 하리라

찬 양 새391장(구446장) ·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김민규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정 기 훈 강도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384장(구434장) 다같이

기 도 정은주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데살로니가후서 2:13~17(신 P335)

말씀선포 설교자

굳건하여 지키라!

목장찬양 여 실버 목장

주기도문 다같이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5, 6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애숙 집사

Since. 1978

No 34. 2014. 8. 24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3. 학원 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 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옹달샘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 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 강해성(김성원), 김경탁(김나경), 김금분, 김영숙, 김성영, 김영민(한현숙), 김춘복, 남영순, 박상임, 박세록, 박석문(정인선), 박유연, 백춘현(임임순), 송정희, 신금순, 안재경(장은숙), 이문희, 이선환, 이성은(박선옥), 이성자, 이승민(이재현), 이재익(김애숙), 전민규, 정기훈(최연옥),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련), 채재규,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최원나, 무영

✦ 감사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재희, 김재근(한영실), 김충남, 김진은(김남주), 김춘복, 노시래(구남량),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해진, 백춘현(임임순), 설인석, 소재익(김미화),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숙),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용국(김복국), 윤석운(박경숙), 윤성욱(김신혜), 이성자, 이승민(엄서운), 이은정(이인호(정지혜), 이재익(김애숙), 정기훈(최연옥), 정옥근(이경미), 정재안, 조성철(이해련),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함돈수(곽정자)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금분, 김영숙, 김영민(한현숙), 김춘복, 박근용(최유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성웅(이혜운), 박순국(조수정), 박유연, 박해진, 백춘현(임임순), 안경환(송명남), 이승민(엄서운), 이진석(윤혜진), 전민규, 정옥근(이경미),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련)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김건국(성욱/도희), 남동균(윤현숙), 남용민, 박유연, 안스디안, 안영원(영민, 해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라희), 장은숙(안소연, 진형, 진석),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김영순A, 김춘복, 박남수, 백춘현(임임순), 안경환(송명남), 윤호식(주정주)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 목적헌금

실버예전도회

목장현황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충남						여3초원	5 김채욱					
	2 강일창							6 고숙자					
남2초원	3 박근용						여4초원	7 곽복남					
	4 김명권							8 성영옥					
남3초원	5 남동균						여5초원	9 구남량					
	6 안재경							10 정혜민					
남4초원	7 오승엽						여6초원	11 한현숙					
	8 박순국							12 김복금					
남5초원	9 조성철						여7초원	13 정옥자					
	10 이인호							14 이경미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여8초원	15 신윤경					
	2 김명숙							16 김춘복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여9초원	17 한은정					
	4 정채순							18 서남지					

금주의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출애굽기 3:1~12

오늘의 본문말씀은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를 지도자로 세울 데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으로 사용하여 나타낸 말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나는 실패자입니다"하는 고백입니다

"그 옛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힘을 써 보다가 실패자라는 오명만 남긴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다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 이 되어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얻었고 남다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을 꿈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40세에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애굽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적인 흥분하여 애굽사람을 때려죽이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겠다는 모세는 결국 실패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는 인생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실패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출애굽기 안에서 40여년이라는 세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 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적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나라"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면서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3)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을 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때려죽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신 실패자를 쓰시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 이용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전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내야만 되겠다는 비전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여년의 광야생활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는 현재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차가살이로 생을 이어갈 뿐입니다. 모세는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나에 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쓰시지 실패한 사람은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만 산 사람들이고 실패한 경험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서 더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3.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40년동안 애굽 왕궁학교에서 학문과 무예를 배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감도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시지 않고 왕궁에서 쫓겨나, 40년을 광야에서 청춘을 다 보내어 젊음의 꿈도, 패기도 자신감도 다 없어진 나 나이 80세에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엇이기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하는 말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이다. 과거의 잘못을 비로잡기에 너무 늦었다고 여가 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출발을 시도하기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하나님에게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이브라함의 부부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서명연애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때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목숨이 다하지 않는 한 너무 늦은 일이란 없습니다.

★부름 받는 모세★

자신은 실패한 자요, 무능한 자요, 이제 힘도 능력도 없는 늙은이에 불가한 모세이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차가살이로 하루하루 양을 먹이는 목자에 불가한 모세가 이스라엘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실 때에는 그가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심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잡고 겸손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누구로 살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내가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